

발 간 사

계율은 승가에게 뗏목과 같습니다. 튼튼한 계율의 뗏목에 올라타야 오온, 십팔계의 물살에 현혹되지 않고 탐진치의 강물 속으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승가가 공(空), 무상(無相), 대원(大願)의 바라밀행을 쉼 없이 벌여나가려면 먼저 계율의 뗏목을 튼튼히 만드는데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계율은 2600년 동안 승가를 유지, 발전시켜 온 근간이자 원동력입니다. 계율은 승가의 청정성을 지켜냈고 공동체 내부의 화해와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계율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 승가의 초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율이 화석처럼 굳어있지 않고 늘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조응해 변화하고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계율이 중국 당나라에 와서 백장청규로 새롭게 태어난 역사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백장청규는 그동안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지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백장청규가 만들어진 지 120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세상, 즉 승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상전벽해라는 표현으로도 형용하기 어려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의 주의 변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교통·미디어·인터넷의 등장과 발전으로 21세기는 ‘신인류가 사는 놀라운 세상’이 됐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 우리나라의 승가는 변화하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넓고 깊게 펴기 위해 다양한 청규를 제정했습니다. 불기2491(1947)년 봉암사 결사의 ‘공주규약(共住規約)’으로부터 시작해 각 총림의 청규가 마련됐습니다. 불기2554(2010)년엔 대한불교조계종 『선원청규』가 편찬됐습니다. 『선원청규』는 전국 선원 수좌스님들의 수행생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그동안 청규의 정신을 이어받으며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승가청규』를 새롭게 제정합니다. 이번 종단 차원의 공식 청규는 몇 가지 점에서 진일보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청규의 대상은 주로 수좌스님이었지만 이번 종단 청규의 대상은 선과 교와 율, 이와 사 모든 스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번 종단 청규는 승가가 지켜야 할 생활윤리와 함께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보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가가 솔선수범해 이 청규를 실천함으로써 불교가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승가청규』 제정을 위해 위법망구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종단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원로의장 스님)와 산하 청규제정위원회(위원장 설우스님)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